

SGRA 포럼 개요
제 4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일 시 : 2020 년 1 월 8 일 (수)~12 일 (일)

장 소 :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 필리핀 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

主 催 :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연구회 (SGRA)

共 催 : 과학연구비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필리핀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

■ 포럼의 취지 :

19 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각 나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 않아,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이 글로벌화의 움직임을 북태평양까지 가지고 오자, 한·중·일은 정치·경제·통신,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상상력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내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서양이 상업에 대한 강한 관심과 새로운 교통·통신·군사기술을 지니고 이 지역에 다시 나타났을 때, 조선·중국·일본은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리고 이 인식은 전통적인 지(知)의 체계와 어떻게 뒤얽혔던 것일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양학(洋學)이 학교 교육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된 한편, 천황을 질서의 핵심에 두고, 가족 내에서는 유교적인 남성우위관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에 대한 반발과 동경심의 구성형태는 나라별로 달랐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서양의 진출은 각국의 자기 방위를 재촉하였고, 결과적으로 각국을 “국민국가”로 변화시켰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국경을 명확화하고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서양이 도입한 해운망은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유인해내기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대량의 노동자가 동남아시아와 미대륙으로 향했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민자가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이민자는 적었으나, 외국 유학생이나 정치적 망명자가 출현하여, 이윽고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경을 넘는 이민·유학·망명의 교착은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를 국제관계와 국내질서의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고, 20 세기의 대변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여, 3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국의 사정을 비교하고 토론할 것이며, 이를 통해 19 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대전환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3 개 국어의 SGRA 레포트로 발행하고, SGRA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제 1 세션: 개회 사회: 리 엔민(李 恩民, 오비린대학)				
개회 인사	조광 趙珰	Cho Kwang	국사편찬위원회	
환영 인사	F. 마끼또	Maquito Ferdinand	필리핀대학 로스파뇨스코	19 세기의 필리핀
기조 강연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Mitani Hiroshi	아토미학원 여자대학	‘아시아’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코멘트	송 지용 宋 志勇	Song Zhiyong	남개대학	
제 2 세션: 서양의 인식 사회: 남기정(南基正, 서울대학교)				
일본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 健晴	Okubo Takeharu	게이오대학	19 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일본의 경우—
한국	한승훈 韓 承勳	Han Seunghoon	고려대학교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 조약 극복 가능성과 한계
중국	쑨 칭 孫 青	Sun Qing	북단대학	마등경영(魔灯鏡影): 18 세기~ 20 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방영(放映)과 제작, 그리고 전파
중국	우 이씨웅 吳 義雄	Wu Yixiong	중산대학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에서 ‘중국과 서양’으로: 19 세기 전기 중국의 서양에 관한 논술 패러다임과 정보전략
제 3 세션: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사회: 무라 카즈아키(村 和明, 도쿄대학)				
일본	오카와 마코토 大川 真	Okawa Makoto	쥬오대학	18 · 19 세기의 여성천황 · 여계(女系)천황론
한국	남기현 南基玄	Nam KiHyun	성균관대학교	일본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중국	꾸어 웨이퉁 郭 衛東	Guo Weidong	북경대학	전통과 제도의 창조: 19 세기 후기 중국의 양무운동
제 4 세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사회: 펑 하오(彭 浩, 오사카시립대)				
일본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Shiode Hiroyuki	교토대학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영어 신문 · 중국어 신문 · 일본어 신문
한국	한성민 韓成敏	Han Sungmin	대전대학교	김옥균의 망명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중국	친 팡 秦 方	Qin Fang	수도사범대학	근대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에 관한 재고
2020 年 1 月 10 日 (金)				
제 5 세션 (14 : 00 – 15 : 30) : 전체토론 사회: 류 지에(劉 傑, 와세다대학)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治世, 아세아대학),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 규슈산업대학), 박한민(朴漢珉, 동국대학교), 쑨 웨이궈(孫衛國, 남개대학)				
제 6 세션 (16 : 00 – 17 : 30) : 전체토론 사회: 류 지에(劉 傑, 와세다대학)				
자유토론				
총괄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 포럼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9/12468/>

■ 프로그램의 경위 :

아즈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 49회 SGRA(세키구지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동경대학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북단대학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회 대화에서는 자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고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 3회 대화에서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명의 국사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과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3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본 원탁회의는 2016년부터 매년 1회,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다. 남은 2회는 근현대사를 테마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3개 국어로 만들어진 레포트 발간 및 배포, 연속 에세이 매거진 발간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 메일 매거진 백넘버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